김재범 기자의 Tourology

카드 한 장으로 즐기는 코리아 투어

똑똑하고 친절한 투어카드, 국가 관광경쟁력 상징

1월 말 론칭, 8개월여만에 10만여장 판매
다양한 혜택과 넓은 사용처…스마트 여행
관광산업 질적성장 위해 적극적 마케팅

코리아투어카드를 공항철도 트래블센터에서 구입하는 외국인 관광객(왼쪽)과 코리투어카드의 모습. 거창한 슬로건이 아닌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한국 여행의 편리함을 높인다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코리아투어카드는 1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해 6월 들어서는 매월 2만 장 넘게 팔리면서 지금까지 10만 7523장이 판매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방문위원회

여행

"한국여행, 이제는 카드 한 장으로 편하게 즐겨요."

예전에 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았다. 방문할 나라의 화폐를 환전하고, 그곳에서 통용되는 신용카드를 챙기는 것은 기본적인 준비 중 하나였다. 여행길에 익숙치 않은 현지 화폐로 쇼핑을 하고 교통편을 이용하면서 금액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늘어나는 동전 때문에 애를 먹은 기억은 누구나 한 두 번은 있다.

하지만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혁명은 이런 여행 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정액을 충전한 선불형 스마트 카드 한 장이면 각종 교통시설 이용부터 면세점, 편의점 이용까지 가능하다. 동전처리 걱정도 할 것 없고, 지갑에 현금을 잔뜩 넣어 다닐 필요도 없다.

야무진 해외여행객이라면 관광객을 위한 투어카드를 챙기는 것은 기본. 나라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갖춘 특색있는 투어 카드가 관광객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느새 그 국가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코리아투어카드'(Korea Tour Card)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머스트 해브'(must have)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한국의 투어 카드다. 내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1월 말 정식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10만장이 넘게 팔릴 정도로 방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국 대중교통수단부터 편의점, 베이커리까지 모두 OK!

외국인 관광객들이 코리아투어카드를 선호하는 것은 우선 전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다. 현재 지자체나 각종 기관별로 자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겨냥해 다양한 교통 패스나 선불카드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리아투어카드는 대한민국 전국의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리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외에 선불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이나 서비스 금액에 맞춰 한국 지폐와 동전을 챙기거나 또는 남는 잔돈 관리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특히 코리아투어카드는 사용 가능한 범위가 무척 넓다. 편의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과 분식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커피 프랜차이즈, 화장품 매장, 테마파크, 한강수상택시, 시티투어버스에 심지어 전통시장 일부에서도 쓸 수 있다.

단순히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것도 아니다. 알뜰한 관광객을 겨냥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쇼핑과 관광,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다양한 혜택과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130개 업체, 2007개 매장에서 카드 사용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두산타워, 현대아이파크몰, 신세계백화점(본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시설과 롯데, 신라, 신세계, 신라아이파크 등의 면세점에서 할인이나 쿠폰북, 사은품을 증정하는 것은 기본. 춘천명동 닭갈비 거리에서도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할인을 해준다.

유레일패스나 스위스트래블패스처럼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일부 공연시설에서도 카드가 주는 쏠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코리아투어카드 한 장으로 가능한 지방관광 상품 개발

이미 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현재 코리아투어카드를 운영하는 한국방문위원회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광산업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를 따지는 양적 성장에서 보다 오래 머물면서 많은 지출을 하는 질적 성장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상황에서 코리아투어카드의 역할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방문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관광박람회에서 코리아투어카드를 적극 홍보하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투어카드를 알리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카드로 즐길 수 있는 지방의 새로운 관광명소와 서비스를 개발해 궁극적으로는 코리아투어카드 하나로 지방관광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외에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준비 단계에서 코리아투어카드의 정보를 확인하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사와의 협력강화, 한국 취항 외국 항공사와의 공동 프로모션, 코리아투어카드 공식 홈페이지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서울드래곤시티 외부 전경.

'호텔플렉스' 국내 첫 등장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10월1일 오픈
인공해변 갖춘 대규모 스카이 라운지

객실 1700개, 수용인원 5000명의 컨벤션 시설, 예산과 취향 따라 고를 수 있는 4개 호텔 브랜드.

국내 첫 '호텔 플렉스(Hotelplex:복수의 브랜드가 모인 호텔)를 표방한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SDC)가 10월1일 문을 연다. 11월로 예정된 공식 그랜드 오픈에 앞선 소프트 오픈이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이와 관련해 27일 오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호텔 소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드래곤시티의 개발·운영사인 서부T&D의 승만호 대표는 호텔 사업 규모에 대해 "부지매입을 제외한 투자액은 약 5000억원이고, 고용창출은 직접 인원 300명~450명을 포함해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이다"고 소개하고 "호텔 입지조건과 시설 경쟁력이 있어 1년 반이면 BEP(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최대 40층 규모로 용의 모양을 형상화한 세 개의 건물에 글로벌 호텔 체인인 아코르 계열의 호텔 브랜드 네 개가 들어섰다. 호텔 브랜드는 럭셔리부터 이코노미까지 고객 취향과 예산, 투숙기간에 맞춰 타깃 고객이 다른 것이 특징. 우선 한국에 첫 진출하는 그랜드 머큐어(202실)은 장기투숙이나 레지던스 수요를 겨냥해 풀 키친을 갖추었다. 노보텔 스위트(286실)은 가족고객과 중장기 투숙객에 맞춰 세미키친과 세탁기,건조기들의 시설을 갖추었다. 그 외에 노보텔 최신 시설을 적용한 업-스케일급의 노보텔(621실)과 모던한 디자인과 가격경쟁력을 강조한 이비스 스타일(591실)이 자리잡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6개의 호텔 레스토랑과 바, 최대 5000여명이 수용 가능한 컨벤션 시설, 스카이 라운지 등이 있는데, 이중 서울드래곤시티가 가장 내세우는 것은 31층부터 34층에 자리잡은 스카이 킹덤. 세계 최초의 4층 스카이 브릿지로 인공해변과 풀, 킹스 베케이션, 퀸스 가든, 더 리본 등 5개의 다이닝을 겸한 라운지 바 및 파티룸을 갖추고 있다. 스카이 킹덤은 11월 그랜드 오픈과 함께 공식 개장한다.

제롬 스튜베르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총괄 총지배인은 "우리 비전은 단순하지만 분명하다. 대한민국 호스피탈리티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호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오픈의 각오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홍콩의 옥토퍼스, 일본의 스위카…관광객 사랑받는 교통카드들

사용·충전 간편, 특화 서비스 없는 한계

면적은 작아도 관광에서는 '거인'인 홍콩에는 관광 효자 아이템으로 '옥토퍼스 카드'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관광객 전용 카드가 아닌 현지인들도 쓰는 교통카드인데,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공항 입국장에 있는 매장에서 대개 이 카드부터 산다. 지하철부터 버스, 시내 트램 등에서 이용할 수 있고 터미널이나 역의 자판기, 스타벅스 같은 카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오가는 스타페리를 비롯해 란타우 섬 등 인근 섬을 오가는 페리선을 탈 때도 쓸 수 있고, 샤샤나 왓슨 같은 드럭스토어에서도 통하는 것이 매력이다.

충전도 간편해 지하철역 어디서나 창구 역무원이나 자동충전기을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리아투어카드와 달리 택시에서 쓸 수 없고, 할인이나 경품 등의 부가혜택은 없다.

일본 스위카 카드도 도쿄 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카드다. 역시 현지인들도 이용하는 일반 교통카드다. 환승도 안되고 티켓 판매기 등 교통 시스템이 은근히 복잡한 일본에서 공항철도부터 시내전철, 지하철, 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쿄 지역 외에 다른 계열의 교통카드를 쓰는 센다이, 니가타, 홋카이도, 도카이, 서일본, 규슈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내국인용 교통카드로 개발하다 보니, 관광객에게만 특화된 서비스나 혜택이 없는 점은 옥토퍼스 카드와 마찬가지다. 김재범 기자

홍콩의 옥토퍼스 카드

목에 걸어 착용하는 의료기기 LOBAC M6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번호 04-785호
목걸이용 LOBAC M6, 손목용 LOBAC LH, 허리용 LOBAC LP3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대호 선수 "로박엠 정식 모델 계약 기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최근 근육 통증을 완화시키고 '로박엠6 목걸이용'이 출시 되었다. 이 목걸이용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과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료기 품목허가 제04-784호)다.

알루미늄 판에 아노다이징 처리한 로박엠은 가벼운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로박엠6 목걸이용의 신상품 LOBACM1, M2 출시된 가운데 주식회사 나라컴퍼니 대표는 "기존 로박엠6 목걸이용 펜던트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타원형이 아닌 원형으로 새롭게 만든 상품이다" 면서 "펜던트에 5가지 색상을 넣어 상품 디자인에 다양성을 더했다." 라고 밝혔다.

(주)나라컴퍼니 측은 이대호 선수 "로박엠 정식 모델 계약 기념" 특별 이벤트를 맞아 구매 하신 모든 분들께 40% 할인 행사를 진행 한다고 전했으며, 선착순 100분께 로박 반지 무료 증정과 고급 선물 포장까지 함께 실시 한다고 말했다.

문의 070-4914-5205 (www.lobac.or.kr)

로박엠 남여공용

로박엠 남여공용

남여공용
허리 주변 근육 통증완화 LOBAC LP2

남여공용
로박엠 컬러형 LOBAC M1, M2 파랑

남여공용
로박엠 컬러형 LOBAC M1, M2 검정

남여공용
로박엠 컬러형 LOBAC M1, M2 빨강

여성용
손목 주변 근육 통증완화 LOBAC LH

남성용
손목 주변 근육 통증완화 LOBAC LH

남성용
발목 주변 근육 통증완화 LOBAC LH-02